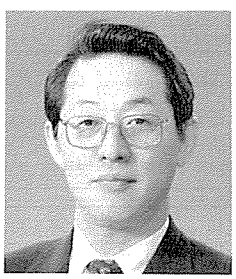
학회순례

## 43년 전통 … 세계정상 造船産業의 원천

# 대한조선학회

**1952년 動亂중 부산서 탄생한 대한조선학회는 6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70년 세계조선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수주량 제1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회원 1천1백72명으로 56개의 단체회원사의 후원을 받아 매년 2차례의 연구발표회를 통한 왕성한 연구활동과 14권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造船용어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金 曉 哲
〈대한조선학회 회장〉

### 64년 12월 학회지 창간

대한조선학회는 한국동란중이던 1952년 11월9일 부산 영도에 소재한 대한조선공사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한 이래 현재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학회의 창립 초기에는 전시라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부가 서울로 환도한 이후에는 회원들이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회의조차도 갖기 어려웠다.

이 시기를 조선학회로서는 파종에서 발아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에 김재근교수가 초대 황부길회장의 뒤를 이어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학회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학회는 회칙을 정비하고 사단법인으로 문교부에 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1964년 12월에는 학회지를 창간하였다. 회지 창간 당시에 학회활동이 중지되어 있던 회원들을 정리하였기에 창간호에 등재된 회원의 수는 정회원 97명에 단체회원 1개 회사에 지나지 않았다. 학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소수 정예로 재정비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회지 창간과 같은 해인 1964년부터 학회는 상공부의 표준형선 설계사업에 참여하여 7년간에 걸쳐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각종 선박 74척을 설계하는 주역을 맡게 되었다. 또 197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박에 관련된 한국공업규격의 주기적인 제정 및 확인을 하고 있으며 1976년으로부터 5개년에 걸쳐서는 선박설계 및 공작기준 제정사업을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 기간중에 쌓여진 경험은 우리나라 조선사업을 일으키는 기술의 원천이 되었다. 특히 조선사업의 원천기술인 설계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음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197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조선사업이 규모면에서 세계 굴지의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하는 선박시장에서 자체설계로 경쟁하여 세계 제1의 수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화학공업분야의 세계 시장에서 기술로 경쟁하여 세계 제1의 수주량을 기록하게 된 이면에는 학회의 노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대한조선학회 회원은 물론이고 모든 조선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83년엔 국제회의 유치

석유위기로 일컬어지는 중동사태로 인하여 세계 조선경기가 불황에 빠져있던 1983년에 학회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실제적 설계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Symposium on Practical Design of Ships and Mobile Units)를 국내에 유치, 개최할 수 있었으며 우리의 조선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무기술상, 학술상, 기술상, 논문상 등을 순차로 제정하여 매년 회원들의 활동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학

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있다. 또한 장차 한국 조선의 주역이 될 후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1972년으로부터 각급 학교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수석졸업자를 포상하고 있으며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 선박설계 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수한 성과를 제시한 설계자들을 포상하여 격려하고 있다.

학회의 활동을 학술활동과 기술보급 활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학술활동으로 대표되는 것은 연구활동이다.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춘계 및 추계 연구발표회에서 매번 1백여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에서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학회 산하의 선박유체역학연구회, 선박구조연구회, 수조시험연구회, 해양공학연구회, 선박설계연구회, 선박생산기술연구회 등이 있으며 각 위원회의 산하에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분과위원회에서도 정례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격월로 발행되는 대한조선학회지에 소개되고 있으며 논문으로 투고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심사를 거쳐 매년 4회 발간하고 있는 대한조선학회 논문집에 수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회에서는 연2회 영문논문집(Journal of Hydrospace Technology : HyTech)을 발간하고 있으며 점차 전세계로 배포처를 늘려가고 있다. 기술보급 활동으로는 춘계와 추계에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여 신기술을 소개하며 세계적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특수한 기술에 관하여서는 여름철에 휴양지에서 정례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도서편찬위원회를 두어 매년 2~3종의 기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그리고 20년간 꾸준히 준비하여 온 「조선용어사전」을 1997년 학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할 목표로 최종 원고를 다듬고 있다.

## 97년 「조선용어사전」 출간

조선기술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전세계를 옮겨다니며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선박은 국제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기술은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다듬어 가고 있다. 선박유체역학 관련기술을 중심으로 하여서는 ITTC(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라는 국제적 조직이 있으며 선박구조 관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ISSC(International Ship and Ocean Structure Congress)라는 국제조직이 있다.

이들 두 회의는 조선기술과 관련된 전세계의 연구활동을 끊임없이 조사 정리 분석하고 있으며 장차의 연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선박 설계기술과 관련하여서는 PRADS(International Symposium on Practice Design of Ships and Mobile Units)라는 조직이 있어서 선박 설계기술과 관련된 실제적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조직에서의 활동은 조선기술의 흐름을 이어주는 매우 긴요한 일이다. 학회는 이들 국제회의에 기술위원으로 선발되어 한국이 속한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활동하게 되는 위원으로서 대학에 소속된 위원들에 대하여서는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중 편도 항공요금을 실비 지원하고 있다.

## 英 조선학회와 자매결연

보다 적극적으로는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학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준비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에서 학술회의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하고 행사후 수익금으로 기금을 상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에 힘입어 1995년 9월17일부터 22일 사이에 한국무역전시관 국제회의실에서 'PRADS '95'를 유치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는 세계 25개국으로부터 3백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룬 바 있었으며 조선한국으로 위상을 높인 계기가 되었다. 또 1996년에는 한·일 유체역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1999년 ITTC의 유치가 확정되어 있다.

대한조선학회는 창립 당시로부터 정기적으로 회원을 정비하여 왔기 때문에 회원 모두가 활발한 활동을 하는 회원이라는 것이 학회의 자랑이다. 현재 1천1백72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56개의 단체회원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정회원중 8백13명이 산업체에 속하고 있어 산·학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학회는 연간 약 1억8천만원의 예산과 약 2억2천만원의 기금을 운영하여 매년 14권의 정기 간행물과 2~3권의 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현재 세계 주요 조선학회와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영국조선학회와는 자매관계를 맺고 있으나 앞으로 선진국 조선학회들과의 유대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